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싱가포르 연수
귀국보고서
(2010. 12. 26 ~ 12. 3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차례 -

I . 들어가는 말	3
II . 본 말	5
1. 싱가포르 개요	5
가. 싱가포르의 간주린 역사	
나. 싱가포르 소개	
다. 싱가포르의 민족, 문화, 언어	
2. 싱가포르 도시국가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도시재개발청 (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8
가. 조직 구성	
나. 조직 운영	
3. 물리적 한계 뛰어넘은 수돗물 만들기, 싱가포르 첨단 정수기술 뉴워터(NEWater) 베독(Bedok) 정수장	14
가. 싱가포르의 역사는 말 그대로 ‘물과의 전쟁’	
나. 연구개발로 기술 수출	
4. 싱가포르 지역공동체 Kreta Community Club	17
5. 싱가포르 국립과학센터(National Science Centre)	19
6. 센토사 섬 멀라이언 공원(Merion Park)	20
7.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LB :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22
III . 맺는 말	24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24
2. 지방의원을 각각의 개인으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27
§ 참고문헌 및 자료	

I. 들어가는 말

19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된 풀뿌리민주주의가 1991년 4월 다시금 그 터전을 일구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에 이르렀다. 1대부터 임기 중 한두 차례 다녀오던 해외연수가 이제는 연중 계획에 잡혀 해마다 다른 나라의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일부 언론과 주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선진지 방문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선진국가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안목을 넓히는 일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본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여 기존에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을 늘 가슴에 새기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 결과가 주민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제6대 서구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연수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의 신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적도의 기적을 이룩한 동남아의 진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비전을 제시할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겸비한 국가 지도자,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나라, 능력과 정직을 중시하는 정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능률적인 정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지도층, 외국인이 투자하고 기업하기에 이상적인 분위기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 신성한 근로정신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실용적인 복지 시스템, 공공질서와 안보가 보장되는 사회,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저렴하고 안정된 물가, 공원 안에 도시가 있고 도시 안에 공원이 있을 정도로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등등. 게다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된 싱가포르의 신화이다.

과연 싱가포르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온통 칭찬 일색으로 우리가 배울 것밖에 없는 완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 새로운 국가 모델로써 손색이 없는 것일까? 짧은 일정에서 몇 군데 시설을 살펴보는 것에 그쳐버린 이번 연수의 일정상 깊이 있는 파악이 쉽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직접 보지 않고 정보로만 파악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피상적 이나마 싱가포르 사회 분위기나 도시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을 살피고 주민을 살피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미약하나마 우리의 능력을 보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의무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곳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건축을 담당하는 도시재개발청(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과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수자원 신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로까지 발전한 베독(Bedok) 정수장의 뉴워터(NEWater) 공장,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싱가포르의 지역공동체인 크레타 지역공동체(Kreta Community Club)를 둘러보았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과학센터(Science Center)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Singapore National Library),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구축, 관광산업과 연결시킨 센토사(Sentosa) 섬의 멀라이언 공원(Merlion Park), 잘 조성된 도시공간들도 함께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에서도 밝히겠지만 싱가포르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는 싱가포르관광청 사이트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국가정보에서 인용하였고, 도시재개발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AURI BRIEF' 소속 연구원의 논문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베독 정수장 NEWater에 관한 정보는 국내 일간지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내부 촬영이 금지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내부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 '바람내음의 여행일기'에서 캡처한 것임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쓰기까지 전반적으로 참고를 삼았던 도서는 한국학술정보에서 발간한 이용주·김덕영의 저서 '신화가 되어 버린 싱가포르'와 한국외국어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싱가포르'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외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여행 서적도 참고했음을 밝힌다.

II. 본 말

1. 싱가포르 개요

가. 싱가포르의 간주린 역사

싱가포르의 초기 역사 기록은 시간의 안개 속에 갇혀 있지만, 3세기경 중국 문헌을 보면 ‘반도 끝에 있는 섬’이라는 뜻의 ‘푸루오충(Pu-luo-chung)’으로 싱가포르를 부르고 있다. 훗날 이 도시는 ‘바다 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섹(Temasek)’으로 불렸는데 첫 번째 정착지 테마섹이 세워진 이때가 서기 1298~1299년이다.

14세기, 작지만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 이 섬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스리비자야(Srivijaya) 왕국의 수도 팔렘방(Palembang)에서 온 상 닐라 우타마(Sang Nila Utama)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여 이를 좋은 징조로 생각한 왕자는 그 동물을 발견한 자리에 도시를 세우고 ‘사자의 도시’라며 ‘싱가푸라(Singapura)’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심하(simha)’는 ‘사자’를, ‘푸라(pura)’는 ‘도시’를 뜻한다.

당시 이 도시는 고대 싱가포르 다섯 왕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 해로가 자연적으로 만나는 곳, 말레이 반도 끝에 자리한 이 도시는 중국 정크선, 인도 선박, 아랍의 다우 배, 포르투갈 전함, 부기스 족의 스쿠너 등 다양한 선박이 모이는 교역소로 번성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가 18세기인데 바로 이 때 지금의 싱가포르가 세워졌다. 당시 싱가포르는 이미 말라카 해협의 떠오르는 교역소였고, 영국은 이 지역에 기항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당시 영국 상인들은 발전하는 대영제국의 상선을 보호하고 물품을 공급할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했다.

당시 수마트라에 있는 벵쿨렌(지금의 벵쿨루)의 부총독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 경(Sir Thomas Stamford Raffles)은 인근 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819년 1월 29일 싱가포르 섬에 상륙했다. 습지로 덮인 이 섬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챈 그는 지역 군주들과의 조약 협상을 도와 싱가포르를 교역소로 정하고, 곧이어 싱가포르의 이러한 자유 무역 정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미국, 중동의 상인들까지 끌어들이었다.

1832년, 싱가포르는 페낭(Penang), 말라카(Malacca), 싱가포르로 구성된 해협 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중심지가 된다.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전신과 증기선이 발명되면서 싱가포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더욱 크게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819년, 불과 150명이었던 싱가포르의 인구는 1860년에 이르러 80,792명으로 늘어났으며, 주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이었다.

하지만 평화와 번성을 구가하던 싱가포르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8일 일본 비행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싱가포르는

1942년 2월 15일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이 지역은 일본인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가혹한 억압과 엄청난 인명 손실이 이 시기에 벌어졌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싱가포르를 영국 군정에 넘겨졌고, 페낭, 멜라카, 싱가포르로 구성된 해협 식민지가 분열될 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1946년 3월, 싱가포르는 영국의 왕령식민지(Crown Colony)가 되었다.

1959년, 민족주의의 성장에 힘입어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싱가포르 최초의 총선이 열렸고, 이 총선에서 인민행동당(PAP)이 다수 의석인 43석을 차지하고, 리관유(Lee Kuan Yew)가 최초의 싱가포르 총리가 되었다. 1961년,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에 병합되었고 말레이반도-사라왁-북보르네오(당시 사바) 연방과의 합병을 거쳐 1963년 말레이시아가 되었다. 하지만 합병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된 자주독립 민주국가로 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22일, 마침내 싱가포르는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했다고 평가받는 리관유 총리는 1990년 11월 32년간의 임기를 마감하고 총리직을 고촉동(Goh Chok Tong, 吳作東)에게 이양하였다. 리관유는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을 거쳐 현재 스승장관(mentor minister)에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다. 2004년 8월 12일, 리관유의 장남인 리셴룽(Lee Hsien Loong, 李显龙)이 싱가포르의 3대 총리이자 재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싱가포르 소개

- 정식국명 : 싱가포르 공화국
- 면 적 : 697 km²
- 인 구 : 466만 명(2010)
- 수 도 : 싱가포르
- 정치체제 : 중앙집권공화제
- 공 용 어 :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 인 구 : 중국인(76.8 %), 말레이인(13.9 %), 인도인(7.9 %)
- 종 교 : 불교(53.3 %), 회교(15.3 %), 기독교(12.7 %), 힌두교(3.7 %)
- 1인당 국민총생산 : 2만 1500 \$(2003)

다. 싱가포르의 민족, 문화, 언어

싱가포르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국제적'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라는 사실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와 상업적 성공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로, 1819년 1월 29일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즈(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교역소로 지정된 싱가포르라는 이 작은 바다 마을은 중국, 인도아대륙,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중동에서 많은 이주민들과 상인들을 끌어들이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한 사람들은 거처를 옮기면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관습, 축제까지 함께 들여왔는데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결혼과 통합을 통해 싱가포르의 다면적 사회 구조와 밀착되면서, 활기 넘치고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후 19세기 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페라나칸 계, 유라시아 계 등의 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가 되었다.

현재 싱가포르 인구는 중국계 74.2 %, 싱가포르의 원주민인 말레이계 13.4 %, 인도계 9.2 %, 유라시아 계, 페라나칸 계 및 기타 민족 3.3 %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데 이들 중 거의 20 %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정착 블루칼라 노동자이고, 나머지 80 %는 북미, 호주, 유럽,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화이트칼라 노동자다.

문화 콜라주의 나라답게 싱가포르는 네 가지 주요 민족(또는 인종) 계층 각각의 언어를 대표 언어로 채택했는데 싱가포르 헌법에 명시된 네 가지 대표 언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토착민족인 말레이족의 위상을 인정하여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를 바하사 말라유, 즉 말레이어로 정했다. 다른 언어, 특히 말레이어와 중국어 변종은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확실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영향은 흔히 ‘싱글리시(Singlish)’라는 크레올 영어인 구어체 영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신분증 구실을 하는 싱글리시는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어가 녹아든 혼합 형태의 언어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며, 서너 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수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며 더 자라나면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데 비문맹 인구의 대다수가 복수 언어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만다린 어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언어는 영어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모국어도 배운다.

많은 중국 방언 가운데 호키엔, 차오저우, 광둥어, 하카, 하이난, 푸저우 같은 방언 대신 만다린 어(북경어)가 중국 표준어로 장려되고 있다. 싱가포르 계 중국인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 만다린 어는 1980년대에 중국인 대상의 ‘중국 표준어 말하기(Speak Mandarin)’ 캠페인이 시작된 후 널리 퍼졌는데 1990년대에는 영어 교육을 받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2. 싱가포르 도시국가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도시재개발청 (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가.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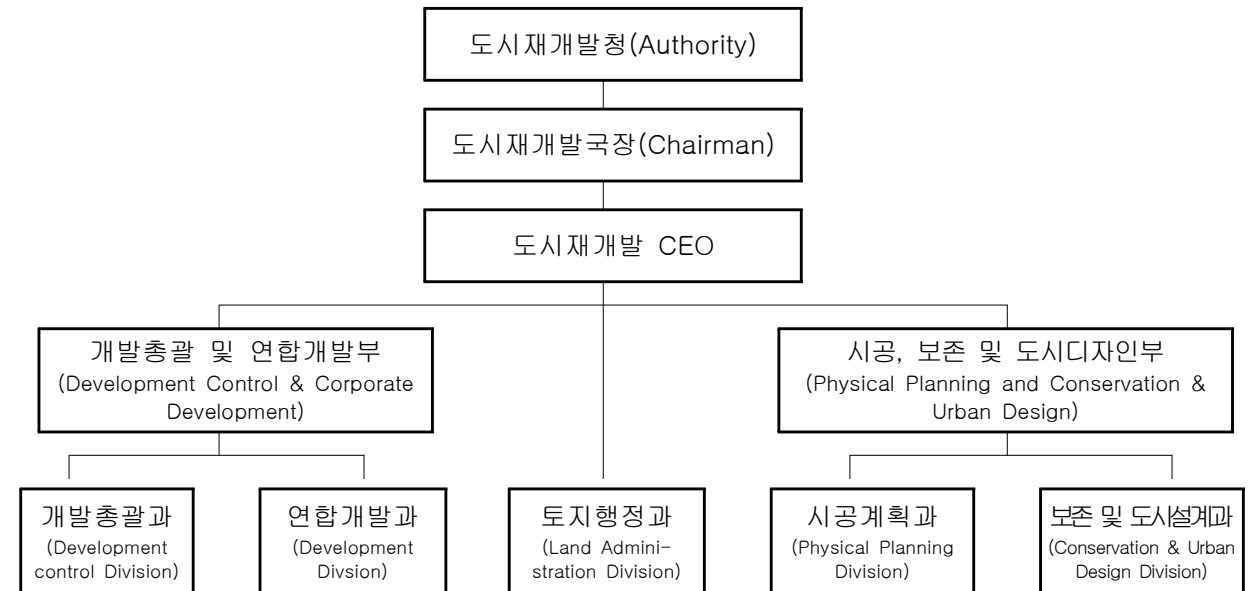
□ 설립 목표 및 역할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를 ‘살고, 일하고, 즐기는 도시로 만들자(Make Singapore a great city to live, work and play)’라는 슬로건 하에 효율적 토지 이용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55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발지침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업무는 싱가포르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용도 및 교통계획 등에 대한 개발계획과 지침 수립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업무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계획과 민간개발에 대한 관리 등이 개발공사 업무, 국유지 장기임대 공개입찰 등의 국유지 임대업무, 마지막으로 도시 갤러리(City Gallery) 운영, 우수한 건축과 도시설계(AUDE : Architectural Urban Design Excellence) 시상 등의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개발청은 계획수립을 위해 BCA(Approaching Building Plan), NP(National Park), HDB(Housing Development Broad)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조직도 >



□ 인원 구성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에는 약 800명이 근무하며, 그 중 약 400명은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나. 조직 운영

□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컨셉 플랜 수립

• 싱가포르의 컨셉 플랜(Concept Plan, 2001)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크게 컨셉 플랜과 마스터플랜에 의해 관리된다. 컨셉 플랜은 향후 40~50년 후의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마스터플랜은 컨셉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10~15년 후를 내다보고 작성되며, 5년마다 리뷰를 거쳐 도시개발 방향을 조정한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컨셉 플랜의 기초 아래 공원 및 수변공간 계획(Parks & WaterBodies Plan)과 각 지역의 아이덴티티 계획(Identity Plan)을 수립하고, 그 후 선행 계획을 모두 고려한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이 모든 계획 과정은 도시재개발청에서 주관한다.

싱가포르의 계획체계가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컨셉 플랜에서 마스터플랜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계획 간의 정합성과 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모든 단계의 계획 과정에서 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토론, 인터넷 등에 의한 피드백과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 이때 마스터플랜의 구상안 작성 이후 시민이 의결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 공공공간 관련 정책 수립

싱가포르는 깨끗한 녹색 도시환경(Clean & Green) 조성 정책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맑은 공기, 편리한 교통과 보행공간, 열대 녹음과 아름다운 꽃, 훌륭한 오프 스페이스 등을 통해 최고의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났다. 도시재개발청은 이 과정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 싱가포르의 공원 연계 계획(Park Connector Network Plan)

공원 연계 계획은 공원 및 수변공간 계획에 기초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별도로 수립된다. 지역별로 8개의 루트 계획과 22개의 실행 계획으로 세분되어 구간별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하였다. 국가공원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계획의 시행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주거 및 개발위원회와 토지교통국 등의 관련 정부기관들과 계획대상지의 토지수용 및 임대문제나 세부 디자인 지침에 대해 협의한다.

• 공공공간 및 수변공간 계획(Public space & Urban Waterfront Mster Plan)

공공공간 및 수변공간 계획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공공공간 계획과 이를 연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써 차후 개발될 용지에 대해 잠정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융통성 있는 용도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개발자우권을 최대한 허용하여 신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사업시행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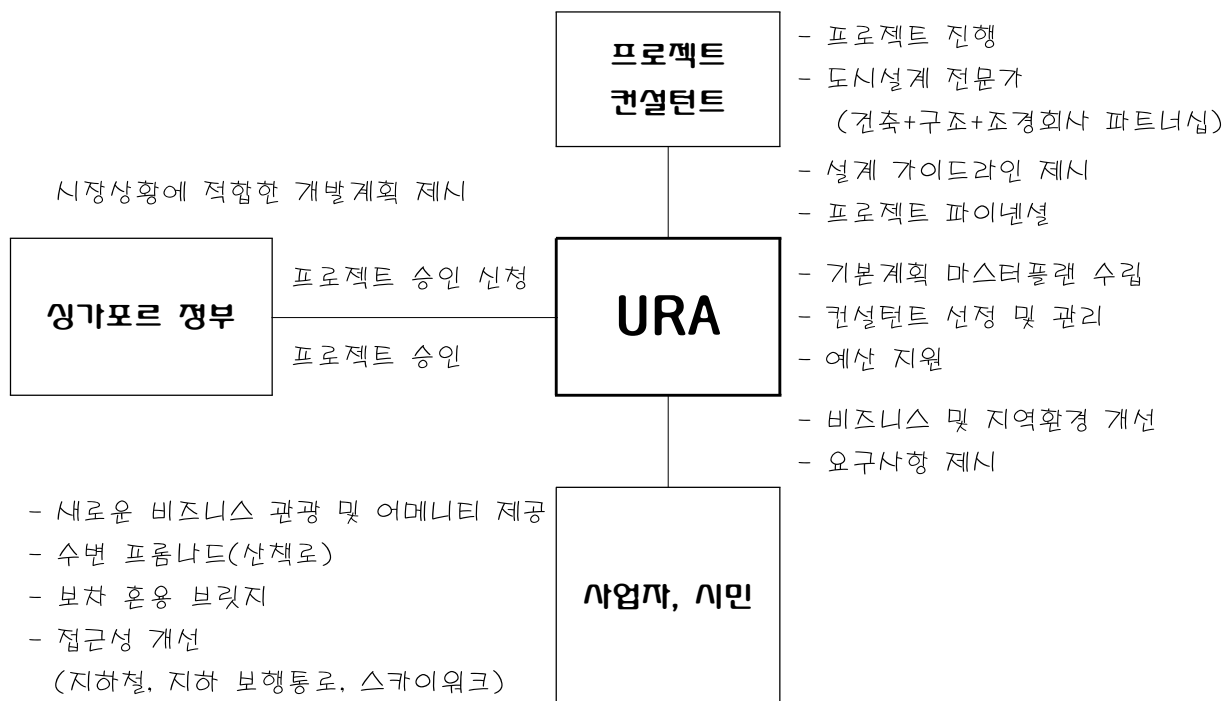
도시재개발청은 도시의 주요 하부 구조물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주도한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상업·주거·여가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향후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계획 수립에서 사업 시행 및 관리까지 담당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그 기획부터 유지 및 관리 단계까지 도시재개발청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뿐 아니라 개발공사(Development Agency)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프로젝트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이릉 담당한다. 도시재개발청이 직접 개발 공사로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마리나베이 프로젝트이다.

도시재개발청은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시재개발청이 제시한 전략과 마스터플랜, 또는 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도시재개발청이 관리하는 사업 건수는 1년에 9천 여 건에 이르며, 그 중 90%가 정해진 일정 내에 이루어진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는 도시재개발청이 수립한 계획을 올바르게 실행 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도시재개발청(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역할 >





←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도시재개발청 (URA) 본사 입구에서 인증 샷 ^^



싱가포르 중장기 도시계획의 →
 마스터플랜에 의해 디자인된
 건축물 모형,
 싱가포르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듯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여럿 전시되어 있다.
 그런 건축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이 모형을 만들어
 관람객의 재미를 더해준다.



↑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을 창조하는 도시재개발청의 청사진을 일반인들에게 전시회 형식으로 공개하는 홍보관, 시티 갤러리의 안내데스크, 다종교 사회임을 실감케 하는 무슬림 안내 직원이 눈길을 끈다.



↑ 마스터 플랜 시가지 모형도



↑ 마스터 플랜 도시계획도

싱가포르 향후 40~50년 후 도시계획의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개발 계획은 컨셉 플랜과 마스터플랜으로 나뉜다. 컨셉 플랜이 큰 전략이라면 마스터플랜은 컨셉 플랜에 근거한 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자료를 미술전시관처럼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조성해 놓아 관람객들이 마치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놓았다. 위의 왼쪽 사진은 마스터플랜에 의한 싱가포르 시가지의 모형도를 큼지막하게 제작, 전시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 시가지 모형도를 평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이다.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걸 보니 URA가 싱가포르의 명소임이 확실한 듯하다.

♣ 약인에 보자! 도시재개발청 중장기 계획에 의해 디자인되고 건축된 시가지 건축물들!!!



▶ 한 눈에 봐도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 싱가포르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입증하듯 공공기관, 업무 공간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똑같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라고 하기에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운영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 싱가포르 중심가 금융지구 옆 매립지에 들어선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전체 면적이 63빌딩의 두 배에 가까운 30만 2171㎡에 지하 3층, 지상 55층 3개 동, 객실 수가 2천 561개에 이르는 초대형 호텔로 이스라엘 출신 건축가 모세 샤프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건물을 만든다.'는 목표로, 두 장의 카드가 서로 기대서 있는 모양에서 착안해 두 개의 구조물이 '入'자 모양으로 서 있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데 건축을 2007년 9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단일 해외 건축으로는 가장 큰 금액인 9,195억에 공사를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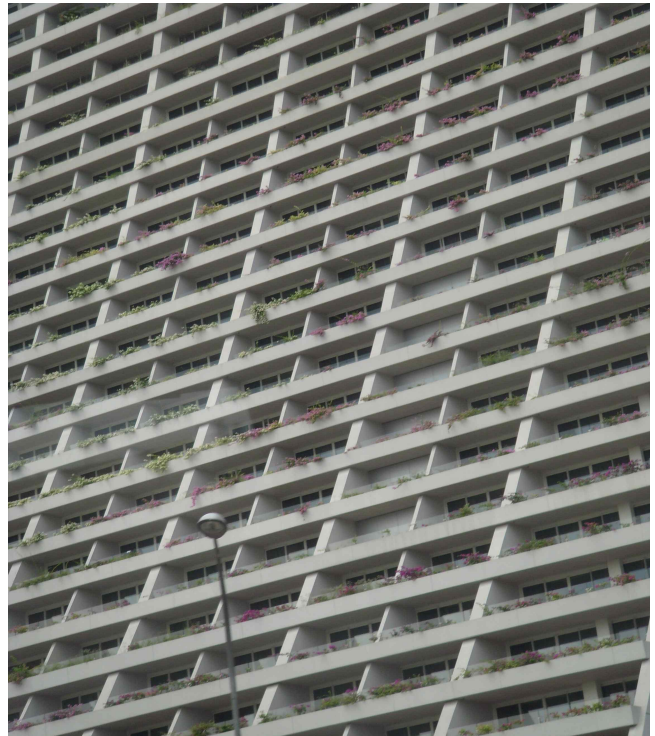
동편 건물은 최고 52도 각도로 기울어져 서편 건물에 기대어 서 있는데 마치 '피사의 사탑'을 보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쌍용건설은 이처럼 휘어진 건물을 짓고자 강선 케이블로 건축물을 끌어주는 포스트 텐션(Post-Tension)' 공법을 적용했고, 두 건물을 하나로 붙이고 나서는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버틸 수 있도록 벽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지상 200m 높이의 옥상에는 거대한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가 올라가 있는데 축구장 2배 크기에 무게가 6만 톤이 넘는 철골 구조물인 스카이파크는 싱가포르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수영장 3개, 레스토랑, 산책로, 스파 등이 설치돼 있다

→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도시 건축물 미관을 위해 호텔 객실 각 창마다 화단을 조성해 놓아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생기와 따스함을 더해주고 있다. 싱가포르엔 이 호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의 창가에 꽃 화단 또는 꽃 화분을 내놓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밤에는 불빛으로 화려함을, 낮에는 식물의 싱그러움으로 도시미관 구성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바라보니 마리나베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다운타운 마리나베이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된 마리나베이는 시청 광장 및 중심 상업 지구와 연계된 마리나베이의 남동쪽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체 부지의 면적은 123헥타르, 약 37만 2천 평에 이른다고 한다. 마리나베이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 및 주거 지역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기존 다운타운의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인 마리나베이 프로미나드 (promenade 산책로)를 신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고밀도의 공간이지만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3. 물리적 한계 뛰어넘은 수돗물 만들기, 싱가포르 첨단 정수기술 뉴워터(NEWater) 베풀 정수장

싱가포르에는 수도꼭지가 4개 있다는 말이 있다. 4개의 수도꼭지란 싱가포르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빗물 집수(Local Catchment),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 하수 재처리, 해수 담수화가 바로 그것이다.

부족한 수자원 때문에 싱가포르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자원 확보 방안은 뉴워터(NEWater)라고도 불리는 하수 재처리다. 이 물은 하수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물이’이라는 뜻의 ‘신생수(新生水)’로 불리기도 한다.

가. 싱가포르의 역사는 말 그대로 ‘물과의 전쟁’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이렇다 할 하천 하나 없어 식수의 절반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대표적 ‘물 기근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대 담수화 기업을 키워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수처리 기술을 선보인 수자원 대국이기도 하다. ‘물’은 수입하되 ‘물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노하우 덕분이다.

싱가포르의 역사는 ‘물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네덜란드가 ‘너무 많은 바닷물’로부터 육지를 구하기 위해 싸워왔다면 싱가포르는 반대로 척박한 땅에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싸워왔다. 실제로 1961년과 63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담수가 말라버려 바닷물을 배급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했던 싱가포르가 택한 최우선과제는 수자원 개발이었다. 연평균 2300 mm 안팎의 비를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담수 저장에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 모두 저수지로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물 수요의 50 % 이상을 저수지가 맡고 있다. 마리나 저수지 등 대형 저수지가 17곳으로 늘어나는 2009년엔 저수지가 60~70 %의 수자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 개발로 기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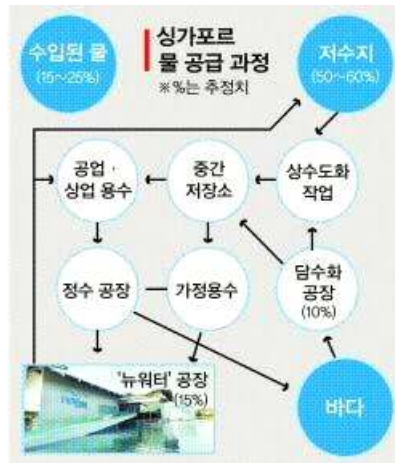
술한 악조건을 딛고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오·폐수를 정화해 다시 쓰고,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쓰는 부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싱가포르의 수자원 관리 기술을 높게 평가해 물 부족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수자원 산업 연구·개발에 3억 3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5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그로 인해 2015년 수자원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인 17억 싱가포르 달러를 차지하고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공시설국(PUB)의 리리 여오는 “수자원 관리 부문의 전문 기술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 또 50곳이 넘는 국내 기업,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면서 “싱가포르가 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워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빗물 집수(Local Catchment),
 수입, 하수 재처리,
 해수 담수화된 물을 정화시키는
베독 정수장 뉴워터 공장
 방문객 센터 앞 연못에 물고기를
 키움으로써
 그만큼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물과
 저수지에 담수된 물,
 그리고 바닷물이 뉴워터 공장에
 들어가 공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베독 정수장 →
 뉴워터 공장의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정수 파이프라인,

초극미세 필터로 만들어진 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물은 최상의 질을 자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 방울의 물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이 파이프는
 싱가포르 전체를 아우른다고 한다,
 아무리 정수시설이 훌륭하다고 해도
 파이프가 노후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었으나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건 아무래도 의사소통 과정상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고……, 쩌)



베독 정수장 NEWater 센터 홍보관에는 →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을 정수 처리하는 첨단 파이프라인과 그 구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방문객이 올 때마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위 사진과 같은 파이프가 국가 전체에 연결되어 해수와 빗물 등 모든 물은 이 필터를 통해 불순물이 걸러진다. 그리고 이곳에서 걸러진 맑은 물이 싱가포르 각 가정과 개인에게 되돌아가는 가는데 이 과정을 다양한 영상과 장치로 보여준다. 오른쪽 사진은 파이프 관의 미립 여과기능을 커튼처럼 형상화하여 이 막을 통과하기만 하면 어떤 불순물도 다 걸러진다고 자랑한다.



←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은 투명한 판 아래 음악분수처럼 물을 뿜어내는 압력으로 강약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깔을 표현해 내는데 마치 물빛이 춤을 추듯 색깔과 농도를 달리하여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정수장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가 방문하던 날 유치원생들도 함께 견학을 했는데 어른들인 우리들은 무덤덤한 반면 아이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안내가 끝나는 마지막에 → 베독 정수장이 자랑해 마지않는 NEWater, 新生水를 한 병씩 받았다. 공짜 물을 받았으니 안내를 해준 홍보 담당자와 기념촬영하는 센스도 잊지 않고, 찰칵!!! 안내를 받으면서 NEWater가 서울의 아리수를 연상시켰는데 이곳 싱가포르 국민들처럼 아리수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실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궁금했다.



4. 싱가포르 지역공동체 Kreta Community Club

다민족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노인인구 증가는 1980년 이후로 국가 차원에서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제반 서비스 향상으로 노인수명도 증가하여 1999년도에 조사된 바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75세, 여자는 80세로 나타났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거주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싱가포르 연수 원래 일정에는 1992년에 → 설립된 비영리 봉사단체로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복지 분야의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Metta Welfare Association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 싱가포르 지역공동체 내에 소속된 Kreta Community Club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reta Ayer의 Seniors Activity Centre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센터 내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는데 다들 밝은 모습이였다. 센터 회장님도 시종일관 웃음을 띠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주셨는데 작지만 다부진 모습이 무척 건강해 보였다. 머무는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의기소침해 있거나 무표정한 어르신들을 한 분도 볼 수가 없어서 둘러보는 우리도 마음이 가벼웠다.

→ 한쪽 테이블에서 다음 프로그램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대여섯 분의 할머니들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데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을 해가며 부의장과 이런 저런 대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한결같이 밝고 활기찬 모습인데다 연세에 비해 건강을 유지하고 계셔서 보기에도 좋았다.



5. 싱가포르 과학센터(Singapore Science Centre)

어린이 과학도들과 과학자 지망생들을 위한 곳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과학 센터는 과학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구현한 850여 가지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 쌍방향) 전시물로 관람객들의 과학적 사고를 단련시키고 있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시킨 키네틱 가든(Kinetic Garden)은 아시아 최초의 야외 인터랙티브 과학 정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35점의 인터랙티브 조각들과 전시 작품들로 구성된 이 정원은 폭포, 연못, 분수, 분무기 등 물과 관련된 소재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주 전시실 이외에 옴니 극장(Omni-Theatre)도 싱가포르사이언스센터의 주요 볼거리이다. 5층 건물 높이에 23미터의 직경을 자랑하는 반구형 대형스크린과 정교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관객들이 박진감 넘치는 영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는데 옴니 극장은 18좌석의 가상 시뮬레이션 극장(Virtual Voyages Simulation Theatre)을 갖추고 있으며, 15분 길이의 우주탐험영화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과학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 과학센터 입구 바깥에 조성된 키네틱 가든(Kinetic Garden)의 일부 모습,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원색을 이용한 작품을 전시해놓았고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을 이용한 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조성해놓았다.

싱가포르 과학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게 해놓은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걸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다뤄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아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껏 유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어른들인 우리도 시간만 된다면 다 한 번씩 다뤄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전시품이 준비하다. 아이들이 한 번씩만 만져본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해서 놀이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해놓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6. 센토사(Sentosa) 섬 멀라이언 공원(Merlion Park)

이곳은 1967년 영국의 식민통치가 끝난 후에 휴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해협을 횡단해 싱가포르 본섬과 연결하는 다리가 놓였다. 말레이어로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센토사를 섬의 정식 명칭으로 정한 것도 이 무렵이라고 한다.

센토사는 길이 약 4.2킬로미터, 폭 약 1킬로미터의 섬이며 전체 면적의 70 %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은 도마뱀, 공작새, 원숭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소중한 자연생태계로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휴양지답게 이곳에는 각종 오락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상징 Merlion은 인어(Mermaid)와 사자(Lion)의 합성어로 싱가포르의 옛 이름은 싱가포르 인데 싱가포르(사자)푸르(언덕), 즉 사자가 있는 곳이란 뜻이라고 한다.

옛날 수마트라(인도네시아의 섬) 내 스리비자야 궁전의 왕자인 스리토리 브아나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묘하고 낯설게 생긴 동물을 보고 이를 사자로 오인하여 싱가포르(Singa Pura: 사자의 도시)라고 칭한 것이 어원이 되어 훗날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국가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징을 찾게 되었고, 싱가포르의 유래가 된 사자와 함께 해양국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인어를 합성해 Merlion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멀라이언 공원에 있는 멀라이언은 엘리자베스 산책로에서 앤더슨 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데 작은 공원이지만 마리나 만 끝 쪽에 있는 높이 8m의 순백 멀라이언 상이 멋지게 바라다보이고, 공원 안에는 그 축소판의 미니 멀라이언 상이 있어서 관광객이라면 빠뜨리지 않고 찾는 명소로 꼽히고 있다. 이 동상의 제막은 1972년 9월 15일 오후 8시 45분에 리관유 수상이 제막 버튼을 눌러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
 싱가포르 시내에는
멀라이언 상이 3개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 아기 멀라이언,
 엄마 멀라이언, 아빠 멀라이언으로
 재미삼아 나누어
 부르고 있다고 한다.
 아기 멀라이언과 엄마 멀라이언이
 멀라이언 공원 내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우리가
 배경으로 찍은 멀라이언 상은
 센토사 섬 내에 있는 아빠
 멀라이언 상 앞이다.
 그곳에서의 인증 샷은 필수 ^^



센토사의 아빠 멀라이언 상은 그 조각상의 높이가 무려 37미터에 달하고 멀라이언 상 내부에 Sea Dragon(바다 용), 오징어, 인어공주 등 채색된 조각상으로 꾸며진 동굴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 계속 나아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9층 높이의 사자 입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센토사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는데 사자의 머리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센토사뿐 아니라 싱가포르 본토와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한다.



↑ 마리나만 광장에 있는 엄마 멀라이언



↑ 엄마 맞은편에 있는 아기 멀라이언

→
 센토사 섬 곳곳에
 자리한 분리수거함
 산뜻한 색깔의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오고
 휴지통을 넘어
 전시품 같은
 인상을 준다.



7.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LB :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싱가포르 부기스 지역 빅토리아 거리에 다다르면 색다른 디자인의 16층(지하 3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크고 작은 듯 수십 개를 단 범선과 같은 느낌을 준다. 평일 7000~8000명, 주말에는 1만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다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LB, 2004년 완공). 독특한 외양만큼이나 신선하고 독창적인 생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세계적 생태건축가 켄 양의 작품이다.



Photo by Lovely Sun

□ ‘건물과 자연의 공존’ 이 NLB(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의 목표

오늘날 세계 생태건축학도들의 ‘교과서’로 통하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NLB(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세 가지 친환경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우선 건물 내부는 마치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통처럼 지상에서부터 옥상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다. 인위적 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풍이 건물 내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바람길’이다. 바람이 모여드는 1층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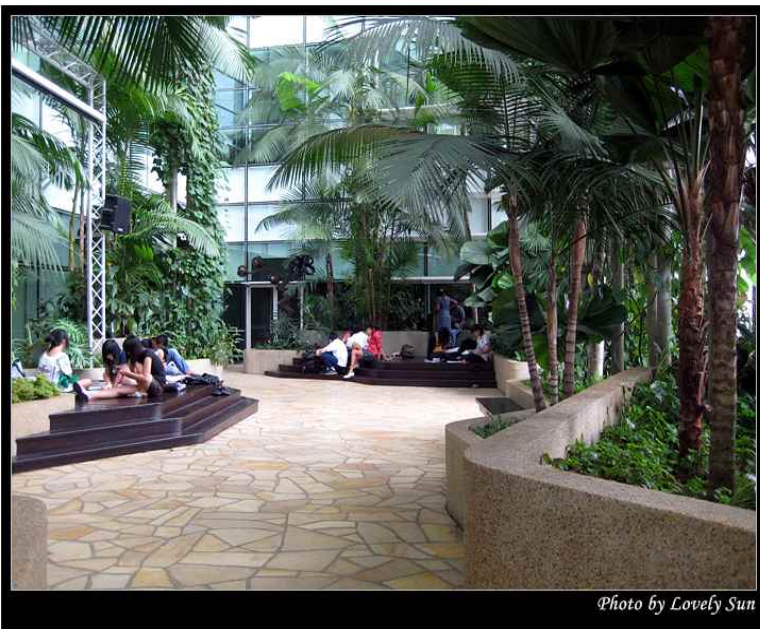


Photo by Lovely Sun

NLB는 건물 구조상 바람이 자연적으로 건물 중심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어 여름철 실내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9개나 되는 실내 정원은 건물 안에서 각종 식물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레 건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정원 별로 싱가포르 자생 식물, 열대 허브 등 각자 테마가 정해져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가든 투어’ 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햇빛과 빗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빛나게 만드는 '포인트'로 건물 외부에는 빛은 통과시키되 열은 차단하는 특수 유리가 설치돼 건물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또 층마다 크고 작은 차양을 설치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건물 지하에는 빗물 저장 시스템을 갖춰 식물을 기르는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냉방용수로는 중수(中水·재활용수)를 사용하는데 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염두에 둔 설계라고 한다.



Photo by Lovely Sun



Photo by Lovely Sun

↑ 도서관 안에 마련된 응접실 같은 공동공간에 자리 잡은 방문객들,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도서관 내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공연장 등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한다.

↑ 도서관 1층 야외에서는 수시로 공연도 열고 전시회도 개최하여 열린 공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



↑ 예기치 않게 방문하게 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앞에서 한 컷. 특별한 방문 절차 없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지만 내부 사진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위에 보이는 내부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녹색 도서관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을 둘러보는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III. 맺는 말

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름다운 가든 시티라고 불리는 섬나라 싱가포르, 동서의 길이가 마라톤 풀코스보다도 짧은 나라, 깨끗하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자랑하고 적도에서 기적을 이룬 동남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 싱가포르. 하지만 아직도 곤장을 때리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자 1965년 독립 이후 리관유 전 수상의 리 씨 왕조에 의해 유지되는 1인1당 체제의 나라이고, 금융을 비롯한 제반 산업이 용병들에 의해 이룩된 경제성장은 국제 정세에 따라 외국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 경제 근간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나라, 음악대학 하나 없는, 오로지 성적이라는 능력에 따라 진학이 결정되고 직업이 결정되는 철저한 서열 위주의 나라 싱가포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싱가포르를 짧은 일정으로 둘러보았다. 우리가 본 것은 알맹이보다 껍데기에 가까울 수 있다.

짧은 일정 속에서 둘러본 싱가포르란 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그 작은 땅덩이에도 몇 개 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안정적인 부를 이뤄냈으니 말이다. 더구나 어느 나라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싱가포르엔 가짜가 없다. 그러니 믿어도 된다.’는 신용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약적 성장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내내 왠지 모를 삭막하고 틀에 꼭 짜인 듯한 답답한 느낌은 무얼까?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도심에 온통 빛의 축제에 수놓은 오차드(Orchard) 거리를 거닐면서도, 1819년 동인도 회사를 통해 들어온 스탬퍼드 래플스가 맨 처음 상륙했다는 싱가포르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레스토랑과 바에서 흘러나오는 형형색색의 불빛과 높이 솟은 마천루에서 뿜어내는 빛들 아래로 리버 크루즈를 타고 흘러가는 동안 저절로 눈이 뜨이고 입이 벌어지는 광경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돌아와 생각해보니 한바탕 화려한 블록 버스터급 영화 한 편을 보고난 후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 정리를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싱가포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 있었다.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인접한 싱가포르에는 인도인,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과 수많은 서양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 ‘페라나칸(말레이시아+중국계)’, ‘홀랜드 빌리지’ 등 각각의 민족색을 띠고 다채로운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싱가포르 인구의 70 %가량이 중국계이다. 다른 나라에 분포하는 화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이곳에서도 대부분의 부는 중국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저임금 일용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저임금 노동력이 지금 싱가포르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지켜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라이언 파크를 둘러볼 때도 많

은 이들의 즐거운 웃음과 활기 속에 씬 없이 그리고 묵묵히 낙엽을 쓸어내고 쓰레기를 줍는 허름한 입성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수고 없이 벌금과 시민의식으로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벌금국가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침 한번 뱉는데 초범이라 해도 70만 원, 담배 한번 피워도 70만 원이란다. 벌금의 규모가 이렇듯 어마어마하니 웬만해선 싱가포르가 깨끗한 국가를 위해 추구하는 'Clean & Green' 정책을 위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 사는 어디나 '몰래몰래'가 있듯이 이곳에서도 몰래몰래 길거리에서 담배도 피고 쓰레기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싱가포르란 나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이 해가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땅덩이가 작은 나라이니 바다를 매립해서 면적을 늘려나갔기 때문인데 그 유명한 센토사의 바닷가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Fake Beach, 가짜 해변이라고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나 할까.

특히 싱가포르의 관광 아이디어에서 놀라웠던 것은 특별할 것 없는 바다사자 이야기를 찾아내어 마치 디즈니랜드사의 포카혼타스나 인어공주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각색시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도록 관광자원화 시켰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 사연이 있음에도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 하고 있는데 반해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멀라이언이라는 싱가포르의 심벌을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고 발길을 이끌어낸 저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만들어 보여주는 각종 형식의 멀라이언 스토리텔링을 접하면서 정말이지 이 나라의 저력은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하게 되었다. 더구나 싱가포르 강 야간 리버 투어에서는 그 화려함과 볼거리가 세계 4대 미항 중 하나인 호주 시드니 항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굳이 멋진 항구를 보기 위해 큰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되는, 동남아 국가임에도 지역 색이 강조되지 않으면서 글로벌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동안 우리는 땅덩이 큰 나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좁은 국토만을 아쉬워했지만 둘러보는 내내 우리보다 더 나올 것 없는 싱가포르가 해낸 일을, 훨씬 큰 땅덩이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접목시키지 못 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더욱 부러운 것은 URA 도시재개발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싱가포르는 국가계획을 세울 때 단기 계획이란 것이 없다. 40~50년 컨셉 플랜을 기본으로 또 다시 5년 주기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건설을 이루어간다는 점이다. '빨리빨리' 그리고 '내 임기 내에 보여 주고 말겠어,' 그래서 5년 임기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성을 갖든 따로따로 놓든 개의치 않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주로 해온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한 가지, NEWater 정수장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만들기 정책에서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수돗물 역시 믿고 마셔도 된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많은 이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는 않는다. 그런 불신이 정수기 회사와 생수 판매 회사만 늘려 가게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최첨단 기술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그 결과로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정수기술을 국가 전체로 확산시켜 어디서든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는 점, 비록 물은 수입하고 빗물을 담아서 재이용하지만 정수 기술은 오히려 세계로 수출한다는 점, 자원과 국토가 부족한 싱가포르가 최대한 인력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시스템화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지닌 어두운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우리는 다만 경제성장이라는 한쪽 면만을 바라보느라 다른 한쪽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관유와 리 씨 가문의 일당 집권 체제가 계속되는 점, 야당도 있고 언론도 있지만 정부와 다른 의견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나라, 지나친 외국인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 등등이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개발부 산하 독립 행정 기관인 주택개발청 HDB(Housing Development Board)에서는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5 %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15 %만 자율시장적 민간주택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의무기간 내에 정부에 되팔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식 분양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을 주택 마련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는 점이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먹을 거리 공급 등에도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살피는 것은 지금 우리네 현실과 비춰볼 때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싱가포르에 가기 전이나 현장에서 듣고 볼 때는 정보가 많지 않았고 싱가포르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것이 컷기에 그리 크게 와 닿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이런 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해 가면서 싱가포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틀에 짜인 듯 통제된 국가라는 느낌은 여전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하에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 이번 연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2. 지방의원을 각각의 개인으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어떤 나라들을 방문했는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실시한 방문국 통계를 내보았다. 지역별로 세분화시키지 않은 유럽이 총 6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역시 총 6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동남아가 4회, 북미와 대양주 견학이 2회, 중국이 1회로 집계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싱가포르를 세 번째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방문내용은 대도시 위주의 사회복지시설과 환경, 에너지 분야가 대체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하늘 높이만 했던 관청의 문이 이제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언제 어느 때라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참여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만큼 민주화되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주민들 속에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지방의원들 역시 자질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거듭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민들은 지방의원을 한 명 한 명 개인 의원의 자질과 활동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선 지방의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의회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의 방법과 결과보고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던 해외 선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본다는 생각, 많이 보게 되면 그만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지방의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매번 새롭게 해외연수를 해왔기 때문에 서구의회가 이미 방문했던 나라,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연수나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보편화된 데다 지방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에 보탬이 되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수가 기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 차원의 연수 목적이 정해져야 한다. 일단 의정활동 과정 중에 생긴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정리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수 목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나라를 정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그에 따른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사전 학습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미나든 워크샵이든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의견을 듣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개인이 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의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펴본 후에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 상황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든가, 어떤 것은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동안 서구의회가 방문했던 국가와 시설이 중복된다면 기존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보완해서 계획을 짜고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쪽으로 연수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각 지방의회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귀국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은 관심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방문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지방의회 경력이 올라갈수록 평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고,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도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작성해서 올려놓은 귀국보고서가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수 후의 보고서 작성도 계획에 맞게 정리하고, 연수 기간 느꼈던 점이나 개선점, 또는 제안들을 집행부와 공유하여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해서 접목시켜 나간다면 해외연수의 기능을 십분, 아니 백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두고두고 서구의회의 보고가 될 것이라 확신해본다.

이제 우리 서구의회가 스무 살이 되었다. 성년이 된 만큼 기존에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걸어갈 각오를 다져야겠다. 그리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신화가 되어 버린 싱가포르, 이용주·김덕영, 한국학술정보, 2005
- 싱가포르, 양승원,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도시재개발국(URA)을 통한 싱가포르의 체계적 도시계획 및 관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2010
- 도시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민·차주영·임유경·김영현, 2008
- 싱가포르관광청 <http://www.yoursingapore.or.kr>
- 서울신문, 2008. 6. 26자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바람내음의 여행일기' <http://blog.naver.com/resttime>